

# 민·官·軍 하나된손모내기

## 군장병 100여명 관인면 초과2리 대민 지원 나서



관인면 초과2리 경지정리지역에서는 군장병 100여명이 나서 대민 지원을 실시했다.

관인면(면장 이윤기) 초과2리(이장 박연수) 경지정리지역에서는 군장병 100여명이 대민 지원을 나와 손 모를 직접 실시하는 등 신세대 장병들의 진지한 농촌 돕기가 마련됐다.

5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손모수에는 양일 간 총 1만2천300평의 경지정리 구간에서 이뤄졌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육군 제8587부대 19연대 1대대와 2대대 병력 50여명과 육군 제2113부대 포병연대 77대대, 88대대, 27대대 병력 50여명이 투입됐다.

박연수 이장은 "최근 농지정리가 완료돼 뒤늦게 모내기를 실시했지만, 아직 흙이 정착되지 않아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있어 군인들의 도움을 받게 됐다"며 "부족한 농촌일손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많은 병력을 지원해준 군부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관인면은 인근 철원소재 군부대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 병력의 대민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녹색도시로 지구를 푸르게"

##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

포천시는 지난 8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고 환경보존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포천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보전 의식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청장, 홍성훈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군부대 및 환경NGO 관계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명예환경통신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통로의 유지와 개선 ▶녹지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토양·대기·수질 등 각종 오염의 예방과 저감 ▶문화예술 및 생활과 부합하는 도시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생명력 있고 푸르른 포천 건설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유공자 39명에 대한 표창과 제6회 환경사랑작품공모전 입상자 86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공모전 입상작품은 포천반월아트홀 로비에 전시돼 기념식 참가자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기념식에 이어 마당극단 '종다'가 창작마당극 '환경유립단' 공연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의 현장을 고발하며 생명의 터전인 환경의 중요성을 관람객들에게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환경비전 2012"를 통해 도시적인 역동성을 가지면서도 자연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환경관리의 미래상을 "생명력 있는 지역, 푸르른 포천"으로 정하고, 녹지기본계획에 기초한 나무백만그루심기와 수질모니터링체계구축, 자연형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 광역상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는 지난 8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우리 동네를 말한 다 31

가산면 마산1리 이장 이상목

#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공부방 활성화 매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는 가산면의 중심지역으로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등 주요행정기관과 가산초등학교, 이웃마을이지만 마산리에 가까운 경복중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마산리의 옛 지명은 '말피'라 불렀는데, 현재의 가산면사무소 뒷산의 모양이 '말 모양'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마산리는 1989년 마산리가 분리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250세대 500여명으로 가구당 주민들은 소형가족 형태로 거주하며, 원주민을 제외한 80가구 정도의 주민들은 공장이나 일용직 등 영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이장으로 임명돼 마을 일을 돌보고 있는 이상목(57·사진) 이장으로부터 마산리에 대해 들었다.

이상목 이장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마산리의 이장을 맡아보았으며, 1993년부터 1년간 가산면 이장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상담수가 영세민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방 생활을 하는 등 열악한 실정에 있다"며 경제 불황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마산리는 대부분 주거지와 상업지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 인구가 인근 생산시설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마산리 주민들은 최근 지하수 부족문제를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다.

이 이장은 "시설체소를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수확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수 및 식수 등 지하수가 절대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아직은 지하수를 의존한 물 공급이 상당부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이장은 "마을을 지나는 도로 역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마산리의 마을조직은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로 구성돼 있다. 이 이장은 "노인회의 경우 남, 녀 노인들이 같이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노인회는 마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의 청년회는 지난 해 1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이장은 "청년회의 활성화는 마을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마을발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목 가산면 마산1리 이장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마을의 청년회는 지난 해 1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어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이장은 "주로 노인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청년회를 조직, 젊은이들의 활력이 필요한 적사대회나 마을의 자체 행사를 위해 조직했다"며 "이 청년회는 5월 7일 노인잔치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장이 마을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주요 추진 사업 중의 하나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 부분이다.

"노인의 일자리 창출은 가산면 복지센터 증축시 건의 할 사항 중 하나"라며 "원주민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토지를 매도해 생활을 하고 있는 형태로 70세까지를 가용 노동력이라고 볼 때 노인이 할 일이 없어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이장은 올해 공부방 활성화 화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포천시에서 1년에 900만원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최근 관리·감독과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운영시간을 현재의 11시부터 새벽2시까지 늘이고 감독자를 선임하는 등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인/터뷰 읍·면·동장 12 신북면 연제남 면장

# 남청산 지역 소득 특화사업 지원

## 現場行政에 적극 매진



연제남 신북면 면장

버섯단지, 축산단지, 공업단지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및 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를 행정 및 민원 서

비스의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기도 하다. 신북면의 일반현황은 행정구역이 27개리 73반, 인구는 1만3천608명 시전체의 9%, 전체 5천353가구 시전체의 9.5%, 면적은 95.90㎢ 시전체의 11.6%, 공무원 20명중 현원 19명근무, 기업체수는 223개업체 3천305명 시전체의 7.4%,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대학 1개교 총7개교 1만950명, 차량은 5천469대 시전체의 9.6%, 의료시설은 4개소,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310세대 486명, 민방위대원 1천716명, 종교시설은 교회14개소, 사찰5개소, 유원지는 깎이울·금동계곡 유원지 지점, 문학골·가마골·열두개울 유원지 비지정, 도로로는 5개노선 연장 44.6km, 하천 20개소 51.7km이다.

1976년 3월 5일 공무원에 들어서 내촌면장, 군내면장, 가산면장을 거쳐 지난 5월 17일 신북면장으로 부임한 연제남(55·사진)면장으로부터 신북면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연 면장은 타지역의 면장 경험을 살려 업무 파악을 빨리 진행했다며 당면 현안사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 면장은 최근 확정된 남청산 지역 소득 특화사업 지원과 도로변 정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 추진을 다짐했다.

"남청산 8개 행정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신북은천지구, 삼정리 허브 아일랜드 등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인·농산물이 다량 생산되는 곳이니 만큼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고 밝혔다.

신북은천지구는 성수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며, 허브아일랜드 역시 연평균 28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인삼물은 것이 70농가에서 1천700가마가 생산되고 있다.

연 면장은 "하지만 이런 수요와는 동떨어져서 숙박 및 음식점 시설이 부족해 발

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시설 확충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여건을 감안 현재 금동2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 들었다.

연 면장은 "금동2리 개발사업은 2007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1,741,903㎡에 12억을 투입 입산물저장 및 가공시설, 상·하수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입산물재배시설, 민박, 낚시터조성, 어린이놀이터, 동물사육장, 체육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이 "남청산 지역의 관광개발은 시의 이미지제고와도 맞물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북면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주요 도로변 환경미화 및 시설물 정리 사업이다.

연 면장은 "지역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다수 산재해 도로변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광고물, 버스승강장, 기타 노상 적치물 등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 면장은 "부임초기라 하루속히 면정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며 "장마철을 대비 위험지역을 순시하는 등 현장행정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신북면의 위상과 발전에 걸맞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KBS 9시 뉴스에 방영된 프로광택사 '청소박사'



## 광택, 코팅, 실내크리닝 흡집제거, 수입차 환영

## 카펫, 침대, 쇼파 출장크리닝 전문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4-16

무료전화 : 080-557-4445

TEL : 031)531-4448 HP : 017-208-4445 대표 한기창

